

2021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윤진(대전광역시 아동복지협회 과장)

### 공동연구원

권지성(대전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연(대전 자혜원 사무국장)

김요한(대전 성심원 사무국장)





# 발 간 사

2021년을 마무리하며 복지 현장의 여러 연구 성과물을 모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 민·관·학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연구공모에 선정된 6개의 연구 과제는 현장 중심의 연구 성과를 복지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생산품 판매 현황 분석을 통한 판로 개척 방안 연구',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사람중심 치매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코로나19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의 연구과제는 연구자들의 각별한 노력 끝에 현장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보다 구체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대전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전시가 복지 선진도시로 한걸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 수요에 맞춰, 각각의 주체가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 및 학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유 미



# 차 례

|                                     |    |
|-------------------------------------|----|
| 제1장 서론 .....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제2장 문헌 검토 .....                     | 7  |
| 제1절 보호종료아동 .....                    | 9  |
| 1.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개념과 현황 .....     | 9  |
| 2.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어려움 .....             | 12 |
| 제2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             | 15 |
| 1.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               | 15 |
| 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달체계 .....           | 17 |
| 제3장 연구 방법 .....                     | 19 |
| 제1절 혼합 연구 방법 .....                  | 21 |
| 1. 연구 대상 .....                      | 21 |
| 2. 자료수집방법 .....                     | 22 |
| 3. 조사 도구 .....                      | 23 |
| 4. 자료 분석 .....                      | 24 |
| 제4장 연구결과 .....                      | 25 |
| 제1절 설문조사결과 .....                    | 27 |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27 |
| 2. 조사대상자의 자립지원 경험 .....             | 29 |
| 3. 조사대상자의 자립지원 욕구 특성 .....          | 35 |
| 4.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            | 42 |
| 제2절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 .....         | 45 |
| 1.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한 의견 ..... | 45 |
| 2. 정서적 지지체계에 대한 의견 .....            | 47 |
| 3. 정보공유에 대한 의견 .....                | 48 |
| 4. 필요한 지원 서비스 .....                 | 49 |
| 제5장 결론 .....                        | 51 |
| 참고문헌 .....                          | 57 |
| 부 록 : 설문지 .....                     | 59 |

## 표/그림 차례

|                                                               |    |
|---------------------------------------------------------------|----|
| <표 2- 1> 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및 보호조치 현황 .....                    | 10 |
| <표 2- 2> 2013~2016 보호종료아동 현황 .....                            | 11 |
| <표 2- 3> 대전광역시 보호아동 현황 .....                                  | 12 |
| <표 2- 4> 자립수준평가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 현황 .....                        | 13 |
| <표 2- 5> 보호종료아동 주거 유형 .....                                   | 14 |
| <표 3- 1> FGI 대상자 특성 .....                                     | 22 |
| <표 4- 1>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27 |
| <표 4- 2>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29 |
| <표 4- 3>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경험 .....                           | 30 |
| <표 4- 4>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립서비스 경험의 도움인식 정도 .....                 | 32 |
| <표 4- 5>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준비 정도 .....                      | 33 |
| <표 4- 6>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제공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인지 유무 ... | 35 |
| <표 4- 7>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 욕구 .....                     | 37 |
| <표 4- 8>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에 따른 지원 욕구 .....                         | 38 |
| <표 4- 9>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욕구 .....               | 39 |
| <표 4-10>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 .....                | 41 |
| <표 4-11>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프로그램지원 등 참여의사 .....            | 42 |
| <표 4-12>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 평균점수 .....                  | 43 |
| <표 4-13>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현재상황에 및 서비스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            | 43 |
| <표 4-14>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문제 평균점수 .....                       | 44 |
| <표 4-15>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현재상황 및 서비스 경험에 따른 심리정서문제 ...            | 44 |
| <표 4-16>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행복감 평균점수 .....                          | 45 |
| <표 4-17>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현재상황 및 보호종료 후 기간에 따른 행복감 ...            | 45 |
| [그림 2-1] 보호대상아동 현황 .....                                      | 9  |
| [그림 2-2]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                                  |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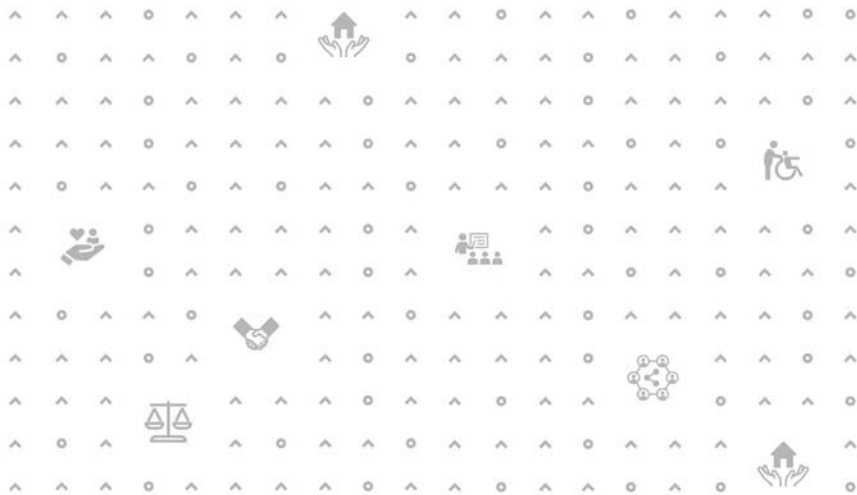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제1장 서론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립은 생애과정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 중 하나로 가정 외 보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보호를 떠나 공식적인 보호 및 지원이 종결되어 자립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2만 8000여명에 이르고, 이들 중 한 해 평균 2,500여명의 아동이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가정 외 보호 체계를 떠나게 된다. 보호종료와 동시에 진학과 취업 등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원가정 복귀를 못 할 경우에는 독립적인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책임의 의무를 경험하면서 혼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인생의 중요한 지위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보호체계를 떠나 홀로 적응해야 하는 두 가지 과업에 부딪치게 된다(권지성, 정선욱, 2009). 또한 이들은 다른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적 배제라는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호기간동안 학교생활에서 낙인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보호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수급에 의존하거나, 정신보건문제, 외로움 등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고 실업 수준은 높으며, 행동 및 정신보건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도 높다(Stein, 2006; 권지성, 정선욱, 2009; 재인용). 또한 가정 외 보호기간이 길며, 그 기간에 부모와 평균 1년에 1번 이하(이상정 외, 2017)로 만나기에 가정 외 보호아동은 부모나 가족들로부터의 정서적지지 및 경제적 지원 등의 지지체계가 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부모의 물질적·정서적·정보적 지원이 일천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학 졸업 때까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59.2%(이소영 외, 2018)인 것과 비교할 때, 보호종료아동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지원계획은 대상자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아닌 확정된 서비스(학자금,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에 대상자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개인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성인기 전이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심리적 측면의 지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제철웅, 장영인, 2019).

퇴소 후 아동들이 겪는 문제들은 취업을 포함한 경제적 문제와 주거, 진로, 원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31.1%)이었으며 다음은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감(10.1%), 돈 관리지식 부족(7.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동자립지원단, 2016).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9년부터 보호종료된 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아동들에게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 자립수당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전국적으로 그 대상자가 360명에 불과하고(대전의 경우에는 32명), 자립수당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기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H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건설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공급을 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의 위치 및 형태와 보호종료아동의 선호와의 차이 및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19상황과 맞물려 얼어붙은 노동시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반 청년들에 비해 시설아동들의 인지 및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 보호종료된 아동들은 혼자라는 외로움, 고립감, 절망감 등의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의 단편적인 경제적지원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심리적인 결핍, 박탈,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은 2019년 7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사업 및 자립수당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사업은 한 명의 사례관리사가 32명의 대상자에게 개별적 사례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주거지의 임대료 및 사례관리비(월 20만원)와 주거환경조성비(1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관리비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취업 및 진로 활동 등을 위한 교육 훈련비 및 긴급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욕구와 현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관리서비스 또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로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자립수당 또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보호종료 5년 이내까지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기에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운영 등도 거점기관의 부재로 각 양육시설 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거점기관의 부재는 가정위탁종료

및 그룹홈에서 종결된 아동들을 위한 자립프로그램의 취약함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자립전담기관의 설치목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주거, 진로, 경제생활 등의 자립준비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함이다(이재완, 2018). 이에 대전의 실상에 맞는 자립전담기관의 설립을 위한 실태 및 욕구 등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전형 모델을 구축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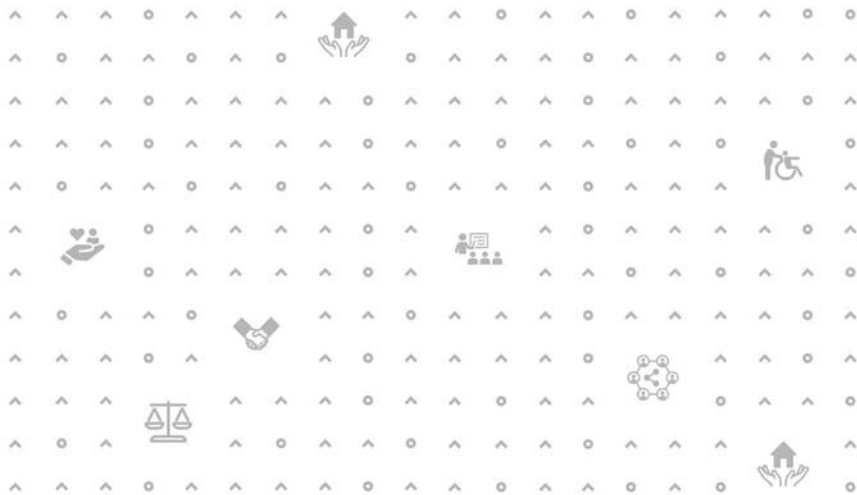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제2장 문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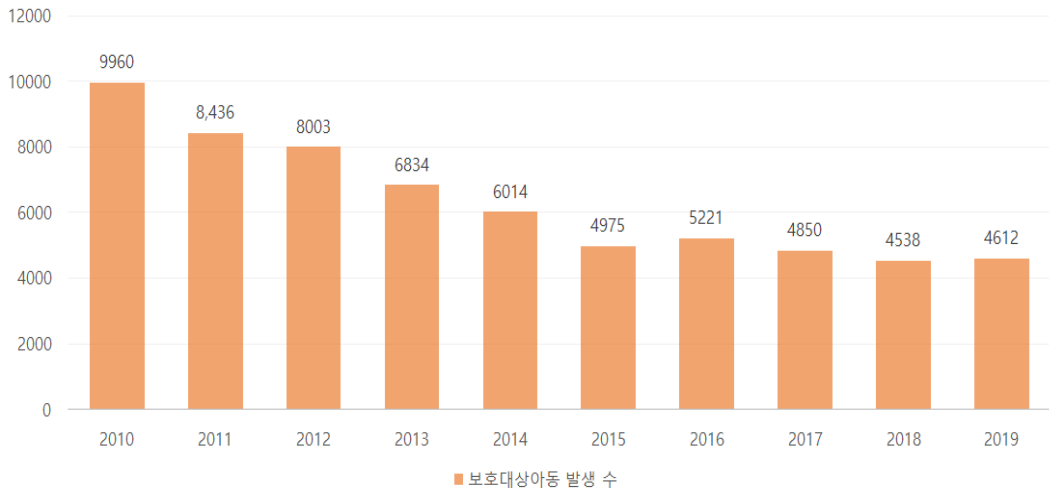
## 제2장 문헌 검토

### 제1절 보호종료아동

#### 1.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개념과 현황

보호종료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조치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4항). 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총 4,612명이다. 보호대상아동은 2010년 10,000여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 이후에는 매년 5천 명 정도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림 2-1] 보호대상아동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호조치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내에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하는 유형을 말한다. 2019년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한 565명을 제외한 3,846명이 보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조치된 아동 중에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2,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이 1,003명,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이 625명, 입양된 아동이 104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19).

<표 2-1> 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및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 보호대상아동<br>발생 수 | 귀가 및<br>연고자 인도 | 시설입소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입양  |
|----------------|----------------|-------|--------|-------|-----|
| 4,612          | 565            | 2,114 | 625    | 1,003 | 104 |

출처: 보건복지부, 2019,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호조치 후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게 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을 ‘보호종료아동’ 이라고 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혼자 독립하게 되며,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장애,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년 보호종료아동은 총 2,606명이며, 이중 대부분은 만기 퇴소하였고(총 1,558명, 양육시설 754명, 가정위탁 647명, 공동생활가정 157명), 보호가 연장된 경우는 가정위탁 702명, 양육시설 311명, 공동생활가정 35명 등이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년도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연장 사유를 살펴보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85.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취업준비(5.2%)와 직업훈련(3.6%) 등이 있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평균 2,400여명이 만기퇴소나 연장의 사유로 보호종료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lt;표 2-2&gt; 2013~2018 보호종료아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 보호종료<br>아동수 | 아동양육시설 |     |     | 공동생활가정 |     |    | 가정위탁  |     |     |
|------|-------------|--------|-----|-----|--------|-----|----|-------|-----|-----|
|      |             | 소계     | 만기  | 연장  | 소계     | 만기  | 연장 | 소계    | 만기  | 연장  |
| 2013 | 2,207       | 1,065  | 679 | 386 | 85     | 51  | 34 | 1,057 | -   | -   |
| 2014 | 2,172       | 1,008  | 635 | 373 | 82     | 47  | 35 | 1,082 | -   | -   |
| 2015 | 2,677       | 980    | 578 | 402 | 140    | 85  | 55 | 1,557 | 793 | 764 |
| 2016 | 2,703       | 1,042  | 673 | 369 | 139    | 74  | 65 | 1,522 | 696 | 826 |
| 2017 | 2,593       | 1,034  | 687 | 347 | 153    | 74  | 65 | 1,406 | 652 | 754 |
| 2018 | 2,606       | 1,065  | 754 | 311 | 192    | 157 | 35 | 1,349 | 647 | 702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p.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 48 재정리.

만 18세 이전에 일시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며,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중간보호종료아동 247명 중 87명(35.2%)가 원가정 복귀했고, 다른 일시대리보호체계로 전원된 사례가 79명(32.0%)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97명 중 49명(50.5%)의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고, 25명(25.8%)의 아동이 전원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한편, 대전광역시 보호아동 현황은 다음 <표 2-2>와 같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대략 8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중학교 재학 이상의 아동들은 보호종료예정아동으로서 시설에서 자립준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3> 대전광역시 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시<br>설<br>수 | 수 용 인 원 |     |     | 아 동 현 황 |           |           |     |    |    |       |
|----------|-------------|---------|-----|-----|---------|-----------|-----------|-----|----|----|-------|
|          |             | 계       | 남   | 여   | 계       | 미 취 학     |           | 초등재 | 중재 | 고재 | 18 이상 |
|          |             |         |     |     |         | 0~3<br>미만 | 3~6<br>미만 |     |    |    |       |
| 아동양육시설   | 11          | 348     | 178 | 170 | 348     | 13        | 60        | 126 | 64 | 64 | 21    |
| 아동보호치료시설 | 1           | 108     | 108 |     | 108     | -         | -         | -   | 33 | 33 | 42    |
| 자립지원시설   | 1           | 14      | 10  | 4   | 14      | -         | -         | -   | -  | -  | 14    |
| 가정위탁     | 1           | 223     | 111 | 112 | 223     | 10        | 19        | 51  | 41 | 57 | 45    |
| 공동생활가정   | 20          | 106     | 61  | 45  | 106     | 6         | 12        | 44  | 17 | 21 | 6     |

출처: 보건복지부(2020.12.31.현재), 공동생활가정은 2019.12.31.현재

## 2.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어려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사회의 공식적 보호와 지원은 모두 종결된다. 또래 대부분이 20대까지 집에 머물면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지만, 보호종료아동은 일찍부터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보호대상아동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인생의 중요한 지위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보호체계를 떠나 홀로 적응해야 하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권지성·정선옥, 2009; 양은별·김지혜·정익중·이정희, 2017; Sara, Lisa, and Jeffrey, 2011).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보호종료아동들은 보호종료 이후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에는 취업과 소득, 돈 관리 등을 포함한 재정 문제와 주거, 진로, 심리적 부담감, 원가족 관계, 사회적 자원 부족 등이 포함된다(아동자립지원단, 2016; 장정은·전종설, 2018; 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박혜지·이정화, 2020).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어려움

보호아동은 보호종료 이후 공식적인 지원과 보호체계로부터 멀어지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후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며,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이 때문에 다수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일용직에 근무하고, 낮은 학력과 기술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장혜림·이정애·강지연·정익중, 2017), 취업 후에도 이직과 전직이 잦아 고정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김예성·이경상, 2015). 많은 자립정착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정 수입이 생길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종료시 받은 자립정착금이나 디딤씨앗통장의 금액을 금방 소진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양육시설 퇴소 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9.1%에서 34.4%로 증가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4.1%에서 45.1%로, 가정위탁 아동은 3.9%에서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표 2-4> 자립수준평가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 현황

(단위: 명, %)

| 연도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
| 2014 | 99(9.1)      | 8(4.1)     | 46(3.9)      |
| 2015 | 135(12.3)    | 24(12.4)   | 62(5.2)      |
| 2016 | 198(18.1)    | 26(13.5)   | 94(7.9)      |
| 2017 | 285(26.1)    | 48(24.9)   | 495(41.5)    |
| 2018 | 376(34.4)    | 87(45.1)   | 495(41.5)    |
| 합계   | 1,093(100.0) | 193(100.0) | 1,192(100.0)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2) 주거의 어려움

보호종료아동 중 다수는 불안정한 주거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장혜림 외, 2017). 보호종료 후에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고, 월세가 28.1%, 자립 지원시설이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57.5%)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16).

<표 2-5> 보호종료아동 주거 유형

(단위: 명, %)

| 구분       | 공공영구<br>국민임대<br>주택 | 전세<br>임대주<br>택 | 자립<br>지원<br>시설 | 그룹<br>홈    | 일반<br>전세    | 월세<br>(보증금<br>유) | 월세<br>(보증금<br>무) | 자가          | 고시원,<br>고시텔 | 기숙<br>사     | 친구<br>집     | 친척<br>집     | 부모님<br>집    | 시설<br>또는위<br>탁가정 | 기타          |
|----------|--------------------|----------------|----------------|------------|-------------|------------------|------------------|-------------|-------------|-------------|-------------|-------------|-------------|------------------|-------------|
| 전체<br>빈도 | 18<br>(1.7)        | 368<br>(33.9)  | 80<br>(7.4)    | 4<br>(0.4) | 41<br>(3.8) | 289<br>(26.7)    | 15<br>(1.4)      | 14<br>(1.3) | 9<br>(0.8)  | 84<br>(7.7) | 23<br>(2.1) | 27<br>(2.5) | 54<br>(5.0) | 17<br>(1.6)      | 41<br>(3.8)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호종료아동 중에는 퇴소 후 살 곳을 찾지 못해 거처를 자주 옮기거나 비슷한 처지의 퇴소 청년끼리 모여서 사는 경우도 있다(장혜림 외, 2017).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범죄나 비행에 연루되기 쉬운 위험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김예성·이경상, 2015).

## 3) 심리·정서적 어려움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부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보호종료 후에는 이러한 불안이 현실화되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기도 한다(이태연 외, 2019). 이들 중 일부는 심리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고, 일상생활 사건에도 잦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질 만족도와 행복감은 비보호아동에 대한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우울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6).

특히, 아동이 보호조치 전의 원가족 관계 문제나 상실감, 또는 시설 생활에서 경험한 심

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한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해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박신애 · 최옥채, 2018; 조소연 · 노혜련, 2018). 이들에게 시설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은 큰 상처로 남게 되는데, 이 때문에 시설에서 살면서 또는 퇴소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아동이 많다. 그러나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정부 지원이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있다(장정은 · 전종설, 2018). 이런 상황에서 보호종료아동이 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제2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 1.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 1)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 지원

##### (1) 소득지원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중 소득지원 서비스에는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이 있다(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생계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매월 51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후 임대료,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기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CDA)은 월 최대 4만원의 범위에서 아동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적립하여 자립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보호를 받고, 보호종료 된지 3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 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되었다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고, 보호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다.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원하는 대학입학금 지원도 이 유형 안에 포함될 수 있다.

## (2) 주거지원

보호종료아동이 경험하는 두 번째 큰 어려움으로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임대료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년 전세·매입 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3) 기타 사회적 지원

주거지원에 못지않은 유용한 사회적 지원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취업지원에는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대학재학생 직무체험,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포함된다. 학업지원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우선배정, 폴리텍대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심리정서지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 2)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민간 지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민간 지원 서비스는 현금지원, 주거지원,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대학 신입생인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 20명 내외를 선정하여 대학입학부터 졸업시까지(8학기) 학기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장학생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캠프와 모임을 지원한다.

둘째, 삼성전자 희망디딤돌 사업은 자립지원센터인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를 자체 건립하고 주거공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립생활관은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부터 25세까지 청소년에게 최대 2년간 1인 1실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취업지원과 함께 대학생의 경우 생활비와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

셋째,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온드림사업은 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매년 선발하여 3년간 거주비와 자기계발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만들고, 분기별로 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주거와 교육, 자기계발, 의료 지원,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에서 매년 60명 정도를 선정하여 교육비(학비와 자기계발비)와 학업생활보조비를 지원하며, 자립정보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배인 길잡이들과 신규 장학생을 소집단으로 묶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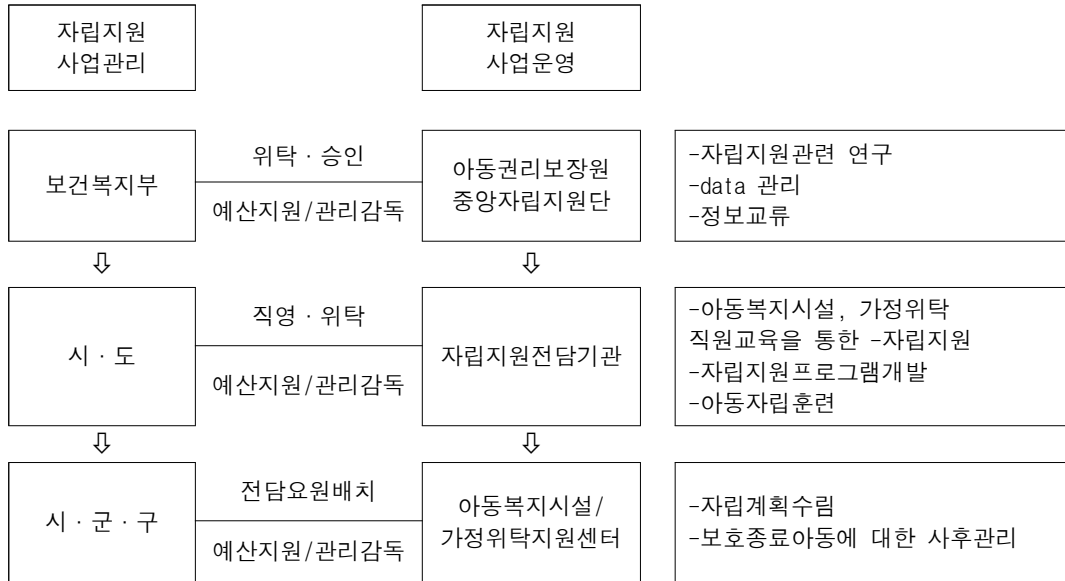
이밖에 기업의 후원을 통해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두드림(DuDream), 청사진(청년사회진출) 등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아동복지협회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 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달체계

아동복지법은 15세부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달체계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자립지원계획수립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센터(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열거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 39조 제1항).

아래<그림 2-2>의 전달체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불명확하다. 지자체는 보호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사후관리라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뿐이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센터에서 보호종료 후 대상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대전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부재로 각 시설 및 가정위탁센터에서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사후관리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설 간의 인력 지원 및 시설 규모,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자립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한 체계적인 지원부재는 오히려 대상자들에게 불리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림 2-2]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출처: 제철웅, 2020.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5면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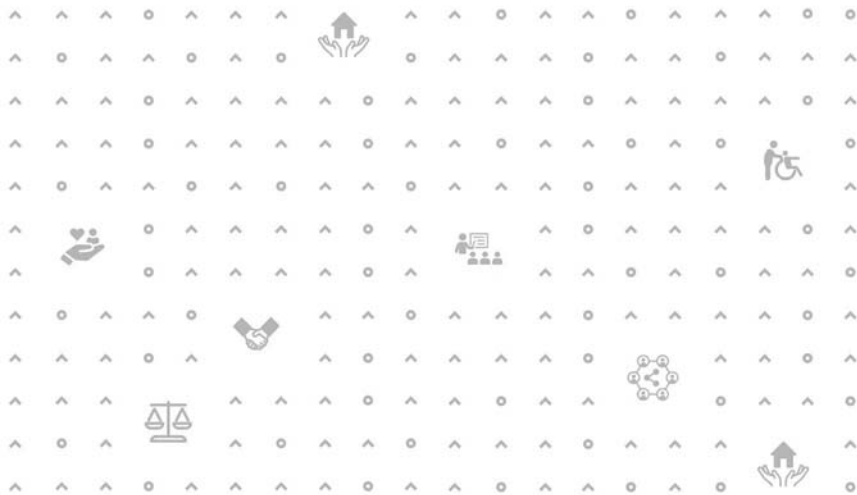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제3장 연구 방법





## 제3장 연구 방법

### 제1절 혼합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남녀 98명과 대전광역시 아동양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중·고등·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조사대상자들의 현황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보호종료아동 및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해 대전에 소재한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전담요 원을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보호종료아동 대상자들은 총 132명이었으나, 설문 작업에 동의하고 성실하게 설문지 문항에 답한 총 98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욕구 및 자립에 대한 정보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중,고등,대학생) 128명 중 설문에 답한 1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28일 까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보호종료아동) 중 7명을 따로 모집하고 퇴소 후 기간을 기준으로 소 집단으로 구성하여 10월 20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소집단 구성시, 대상자들의 역동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종료된 아동들이 같이 모여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차 초점집단면접에는 남자 2명, 여자 3명 총 5명이 참여했다. 2차 초점집단면접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을 포함하여 총 2명이 참여했다.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표 3-1 > FGI 대상자 특성

| 그룹 | 구분 | 성별 | 연령 | 보호종료 후<br>기간 | 주거지원통<br>합서비스<br>경험 | 직업     | 보호 기관 |
|----|----|----|----|--------------|---------------------|--------|-------|
| A  | A1 | 남성 | 21 | 3년           | 있음                  | 대학생    | 양육시설  |
|    | A2 | 여성 | 23 | 4년           | 있음                  | 직장인    | 양육시설  |
|    | A3 | 남성 | 23 | 2년           | 없음                  | 취업준비 중 | 양육시설  |
|    | A4 | 여성 | 23 | 3년           | 있음                  | 취업준비 중 | 가정위탁  |
|    | A5 | 여성 | 24 | 3년           | 있음                  | 직장인    | 가정위탁  |
| B  | B1 | 남성 | 20 | 2년           | 있음                  | 대학생    | 양육시설  |
|    | B2 | 여성 | 20 | 1년           | 없음                  | 대학생    | 가정위탁  |

## 2. 자료수집 방법

###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인 조사대상자의 현재 상황 및 정서적인 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2016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한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의 일부이며, 현재 대상자의 현황(퇴소 후 기간, 재정상황 등), 퇴소 후 경험한 지원, 필요한 지원, 자존감, 자기효능감, 행복감, 불안우울감, 공격성, 정서조절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과의 연락, 희망하는 퇴소시기, 보호종료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 및 자립정착금의 사용희망처, 희망하는 지원서비스, 현재 알고 있는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초점집단면접(FGI)

보호종료아동 7명을 2개의 초점집단으로 구성하고, 과거 시설 생활에서 경험한 정서, 퇴소 후 경험한 어려움, 퇴소 후 경험한 지원(재정, 주거, 정보, 정서 등),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주제로 두 차례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 3. 조사 도구

#### 1)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4점 척도로써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능감은 Hernandez(1993)가 사용한 효능감 척도와 Sherer et al.(1982)이 만든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척도이자, 2008년,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된 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기존 조사연구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의 신뢰도 값 Cronbach  $\alpha$  는 각 .931, .726으로 나타났다.

#### 2) 심리행동 문제영역

심리행동 문제영역은 공격성 6개 문항, 정서조절감 3개 문항, 불안 3개 문항, 우울 2개 문항,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정서조절감 3개의 문항은 역문항이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하여 구축한 청소년 패널 데이터의 문항으로 지난 2008년, 2012년 자립실태조사에서도 본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값 Cronbach  $\alpha$  는 공격성 .881, 정서조절 .725, 불안 .775, 우울 .930로 나타났다.

#### 3) 행복감

본 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보고자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및 2016년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활용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4점 척도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감의 신뢰도 값 Cronbach  $\alpha$  는 .817로 나타났다.

## 4. 자료 분석

설문지를 통한 양적 조사를 통해 응답된 데이터는 SPSS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현재 상황 및 욕구 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검증, T-test를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는 질적 연구접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주화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면접 녹취록에서 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추출하고, 이 중에서 유사한 단위들을 묶어서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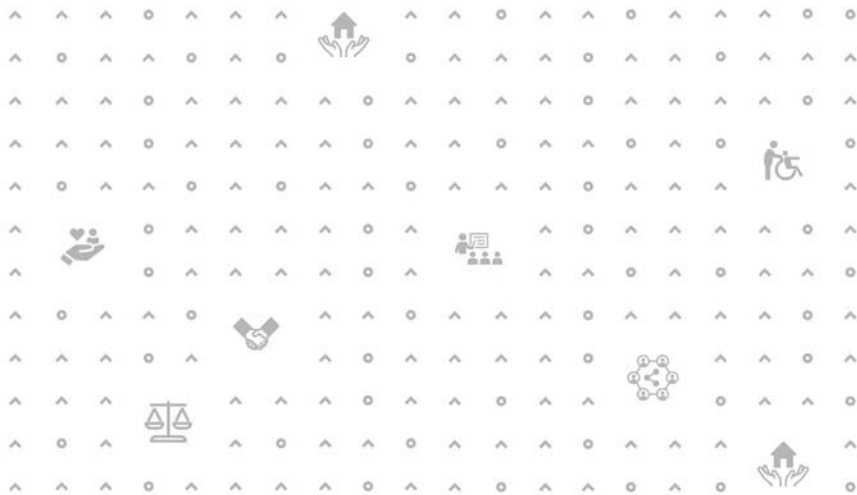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제4장 연구 결과







## 제4장 연구 결과

### 제1절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설문조사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4-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51명(52.0%), 남성 47명(48.0%)였으며, 보호유형은 시설 85명(86.7%), 가정위탁 13명(13.3%)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은 3년 미만이 57명(58.6%), 3년 이상이 41명(41.4%)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중인 대상자는 41명(41.4%),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는 24명(24.2%), 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는 32명(32.3%), 대학진학을 준비 중인 대상자는 2명(2%)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11명(11.1%),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9명(9.1%),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18명(18.2%)로 나타났다.

< 표 4-1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여성                 | 51 | 52.0 |
|           | 남성                 | 47 | 48.0 |
| 보호기관      | 양육시설               | 85 | 86.7 |
|           | 가정위탁               | 13 | 13.3 |
| 보호종료 후 기간 | 3년 미만              | 57 | 58.6 |
|           | 3년 이상 경과           | 41 | 41.4 |
| 현재상황      | 대학재학 중이거나 취업 중     | 71 | 72.4 |
|           | 대학진학 준비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 27 | 27.5 |

|    |      |    |       |
|----|------|----|-------|
| 직종 | 사무직  | 11 | 28.9  |
|    | 생산직  | 9  | 23.7  |
|    | 서비스직 | 18 | 47.4  |
| 계  |      | 98 | 100.0 |

조사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4-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50명(45.45%), 여자 60명(54.55%)였으며, 학교/학년은 중학교 1학년 12명(10.91%), 중학교 2학년 17명(15.45%), 중학교 3학년 12명(10.91%), 고등학교 1학년 20명(18.18%), 고등학교 2학년 17명(15.45%), 고등학교 3학년 20명(18.18%), 대학생 12명(10.91%)로 나타났다. 원가족과의 연락정도는 거의매일은 15명(13.64%), 1주에 3번이상은 16명(14.55%), 매주 1회이상, 한달에 4회 이상은 19명(17.27%), 한달에 1회이상은 16명(14.55%), 1년에 6회 이상은 8명(7.27%), 1년에 5회 이상은 8명(7.27%), 연락이 없음은 28명(25.45%)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퇴소예정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55명(50.0%), 대학교 졸업 후 18명(16.36%), 대학교 재학 중 희망할 때 아무 때나 14명(12.73%), 법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19명(17.27%), 기타 4명(3.64%)로 나타났다. 원가족과의 연락 횟수가 전혀 없는 경우는 28명에 불과하기에 원가족과의 접촉이 아동의 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김민정, 이운경, 김태우, 양예진, 2019; Thoburn, 1994) 원가족과의 만남이 상처와 낙인감을 더 강화하여 사회적응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장혜림, 정익중, 2017). 이에 원가족과의 만남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이 보호종료 후 지급되는 현금급여인 자립정착금 및 CDA(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이 아동의 부모나 친권자에게 바로 전달되어 아동의 자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

&lt; 표 4-2 &gt;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 분          |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남자                  | 50  | 45.45 |
|              | 여자                  | 60  | 54.55 |
| 학교/학년        | 중학교 1학년             | 12  | 10.91 |
|              | 중학교 2학년             | 17  | 15.45 |
|              | 중학교 3학년             | 12  | 10.91 |
|              | 고등학교 1학년            | 20  | 18.18 |
|              | 고등학교 2학년            | 17  | 15.45 |
|              | 고등학교 3학년            | 20  | 18.18 |
|              | 대학생                 | 12  | 10.91 |
| 원가족과의 연락     | 거의 매일               | 15  | 13.64 |
|              | 1주에3번이상             | 16  | 14.55 |
|              | 매주1회이상, 한달에 4회 이상   | 19  | 17.27 |
|              | 한달에 1회 이상           | 16  | 14.55 |
|              | 1년에 6회 이상           | 8   | 7.27  |
|              | 1년에 5회 이하           | 8   | 7.27  |
|              | 연락이 없음              | 28  | 25.45 |
| 희망하는 퇴소예정 시기 | 고등학교 졸업 후           | 55  | 50.00 |
|              | 대학교 졸업 후            | 18  | 16.36 |
|              | 대학교 재학 중 희망할 때 아무때나 | 14  | 12.73 |
|              | 법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 19  | 17.27 |
|              | 기타                  | 4   | 3.64  |
| 계            |                     | 110 | 100.0 |

## 2. 조사대상자의 자립지원 경험

### 1)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경험

대상자 중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경험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37명(37.8%), 서비스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61명(62.2%)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56명(57.1%), 받았으나 종결된 대상자는 16명(16.3%),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26명(26.6%)로 나타났다. 임대료 지원 등 주거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2명(63.3%),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36명(36.7%)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을 경험한 대상자는 64명(65.3%),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34명(34.7%)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경험한 대상자는 32명(32.7%),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는 66명(67.3%)로 나타났다. 생활지원의 경우 지원을 경험한 대상자는 50명(51.0%),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는 48명(49.0%)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의 경우 지원을 경험한 대상자는 24명(24.5%),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는 74명(75.5%)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의 경우, 정착금을 받은 대상자는 90명(91.8%)이며,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명(8.2%)로 나타났다.

< 표 4-3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경험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주거지원서비스 | 지원 받은 경험 없음 | 61 | 62.2 |
|         | 지원 받은 경험 있음 | 37 | 37.8 |
| 자립수당    | 현재 받고 있음    | 56 | 57.1 |
|         | 받았으나 기한 종결됨 | 16 | 16.3 |
|         | 경험 없음       | 26 | 26.6 |
| 임대료     | 지원 받은 경험 없음 | 36 | 36.7 |
|         | 지원 받은 경험 있음 | 62 | 63.3 |
| 교육비     | 지원 받은 경험 없음 | 34 | 34.7 |
|         | 지원 받은 경험 있음 | 64 | 65.3 |
| 의료비     | 지원 받은 경험 없음 | 66 | 67.3 |
|         | 지원 받은 경험 있음 | 32 | 32.7 |

|       |             |    |      |
|-------|-------------|----|------|
| 생활 물품 | 지원 받은 경험 없음 | 48 | 49.0 |
|       | 지원 받은 경험 있음 | 50 | 51.0 |
| 심리 상담 | 지원 받은 경험 없음 | 74 | 75.5 |
|       | 지원 받은 경험 있음 | 24 | 24.5 |
| 자립정착금 | 지원 받은 경험 없음 | 8  | 8.2  |
|       | 지원 받은 경험 있음 | 90 | 91.8 |

대상자(보호종료아동) 중 자립지원서비스 경험이 대상자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자립지원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들은 임대료의 경우 63명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한 대상자는 없었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지원을 경험한 대상자 35명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비(대학학자금)의 경우에도 도움을 경험한 대상자 51명 중 1명 만이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50명의 대상자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자격증취득지원)의 경우, 지원을 경험한 46명 중 1명이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45명의 경험자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비(교재교구지원)의 경우, 경험을 한 47명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단련비 지원의 경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9명 모두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을 경험한 52명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요리교육의 경우, 지원을 경험한 대상자는 26명으로 그 중 1명이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25명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경험한 30명의 대상자 중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2명, 도움이 된다는 28명으로 나타났다. 심리검사 및 상담의 경우, 서비스를 경험한 28명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경제 교육 및 재무컨설팅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경험한 36명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고용지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경험한 32명 중 29명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명은 도움이 안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립서비스 경험의 도움인식 정도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임대료 지원                | 도움 안된다 | 0  | 0      |
|                       | 도움 된다  | 63 | 100.0  |
| 의료비 지원                | 도움 안된다 | 0  | 0      |
|                       | 도움 된다  | 35 | 100.0  |
| 교육비 지원<br>(대학 학자금)    | 도움 안된다 | 1  | 2.0    |
|                       | 도움 된다  | 50 | 98.0   |
| 교육비 지원<br>(자격증 취득 지원) | 도움 안된다 | 1  | 2.2    |
|                       | 도움 된다  | 45 | 97.8   |
| 교육비 지원<br>(교재, 교구 지원) | 도움 안된다 | 0  | 0      |
|                       | 도움 된다  | 47 | 100.0  |
| 체력단련비 지원              | 도움 안된다 | 0  | 0      |
|                       | 도움 된다  | 29 | 100.0  |
| 생활 지원                 | 도움 안된다 | 0  | 0      |
|                       | 도움 된다  | 52 | 100.0  |
| 요리교육                  | 도움 안된다 | 1  | 3.8    |
|                       | 도움 된다  | 25 | 96.2   |
| 노동인권교육                | 도움 안된다 | 2  | 6.7    |
|                       | 도움 된다  | 28 | 93.3   |
| 심리검사 및 상담             | 도움 안된다 | 0  | 0      |
|                       | 도움 된다  | 28 | 100.0  |
| 경제교육 및 재무컨설팅          | 도움 안된다 | 0  | 0      |
|                       | 도움 된다  | 36 | 100.0  |
| 취업고용지원                | 도움 안된다 | 3  | 9.4    |
|                       | 도움 된다  | 29 | 90.6   |

## 2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준비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보호종료 후 제일 걱정되는 부분에서 주거 34명(30.91%), 학업 6명(5.45%), 취업 37명(33.64%), 교우(친구)관계에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심리적 어려움 8명(7.27%), 법적문제 2명(1.82%), 문화,여가활동 2명(1.82%), 일상생활관리 11명(10%), 기타(경제적 어려움) 10명(9.09%)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계획으로는 저축 33명(30.0%), 생활용품구입 18명(16.36%), 생활비 31명(28.18%), 여행 4명(3.64%), 교육비 5명(4.55%), 주거지마련 18명(16.36%), 기타 1명(0.91%)로 나타났다. CDA, (디딤씨앗통장)활용계획은 해지않고 계속 적립한다 87명(79.09%), 해지하여 바로 사용한다 16명(14.55%), 기타 5명(4.55%)로 나타났으며, CDA(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여 바로 사용한다의 경우 사용계획은 주거비 11명(68.75%), 교육비 3명(18.75%), 결혼자금 1명(6.25), 기타 1명(6.25)로 나타났다.

< 표 4-5 >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준비 정도

| 구 분               |                  | 빈도 | 백분율   |
|-------------------|------------------|----|-------|
| 보호종료 후 제일 걱정되는 부분 | 주거               | 34 | 30.91 |
|                   | 학업               | 6  | 5.45  |
|                   | 취업               | 37 | 33.64 |
|                   | 교우(친구)관계         | 0  | 0.00  |
|                   | 심리적 어려움          | 8  | 7.27  |
|                   | 법적문제             | 2  | 1.82  |
|                   | 문화, 여가활동         | 2  | 1.82  |
|                   | 일상생활관리(식사, 청소 등) | 11 | 10.00 |
|                   | 기타(경제적어려움)       | 10 | 9.09  |
|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계획   | 저축               | 33 | 30.00 |
|                   | 생활용품구입           | 18 | 16.36 |
|                   | 생활비              | 31 | 28.18 |
|                   | 여행               | 4  | 3.64  |
|                   |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등)  | 5  | 4.55  |

|                  |                 |     |       |
|------------------|-----------------|-----|-------|
|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계획  | 주거지마련           | 18  | 16.36 |
|                  | 기타              | 1   | 0.91  |
| CDA(디딤씨앗통장) 활용계획 | 해지하지 않고 계속 적립한다 | 87  | 79.09 |
|                  | 해지하여 바로 사용한다    | 16  | 14.55 |
|                  | 기타              | 5   | 4.55  |
|                  | 무응답             | 2   | 1.82  |
| 계                |                 | 110 | 100   |

조사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정부와 지자체, 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인지 유무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대한 부분과 자립지원 준비 정도는 아래 <표 4-6>과 같다. 조사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제공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인지 유무를 살펴보면, 자립정착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 86명(78.18%), 모른다 24명(21.82%), CDA(디딤씨앗통장)에 대하여 알고 있다 99명(90%), 모른다 11명(10.0%), 자립수당에 대하여 알고 있다 73명(66.36%), 모른다 37명(33.64%), 국민기초생활급여에 대하여 알고 있다 88명(80.0%), 모른다 22명(20.0%),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 73명(66.36%), 모른다 37명(33.64%), 공동생활가정입주에 대하여 알고 있다 45명(40.91%), 모른다 65명(59.09%), 자립생활관에 대하여 알고 있다 68명(61.82%), 모른다 42명(38.18%),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다 30명(27.27%), 모른다 80명(72.73%), 주거지원(공공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알고 있다 81명(73.64%), 모른다 29명(26.36%),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주거지원+사례관리)에 대하여 알고 있다 45명(40.91%), 모른다 65명(59.09%), 바람개비서포터즈에 대하여 알고 있다 24명(21.82%), 모른다 86명(78.18%)로 나타났다. 현금급여 성격이 강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과 퇴소 후 거주지에 관련된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인 반면, 그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t; 표 4-6 &gt;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제공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인지 유무

| 구 분                      |      | 빈도  | 백분율   |
|--------------------------|------|-----|-------|
| 자립정착금                    | 알고있다 | 86  | 78.18 |
|                          | 모른다  | 24  | 21.82 |
| ODA(디딤씨앗통장)              | 알고있다 | 99  | 90.00 |
|                          | 모른다  | 11  | 10.00 |
| 자립수당                     | 알고있다 | 73  | 66.36 |
|                          | 모른다  | 37  | 33.64 |
| 국민기초생활급여                 | 알고있다 | 88  | 80.00 |
|                          | 모른다  | 22  | 20.00 |
| 국가장학금                    | 알고있다 | 73  | 66.36 |
|                          | 모른다  | 37  | 33.64 |
| 공동생활가정입주(자립형, 그룹홈)       | 알고있다 | 45  | 40.91 |
|                          | 모른다  | 65  | 59.09 |
| 자립생활관                    | 알고있다 | 68  | 61.82 |
|                          | 모른다  | 42  | 38.18 |
|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            | 알고있다 | 30  | 27.27 |
|                          | 모른다  | 80  | 72.73 |
| 주거지원(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 알고있다 | 81  | 73.64 |
|                          | 모른다  | 29  | 26.36 |
| 주거지원<br>통합서비스(주거지원+사례관리) | 알고있다 | 45  | 40.91 |
|                          | 모른다  | 65  | 59.09 |
| 바람개비서포터즈                 | 알고있다 | 24  | 21.82 |
|                          | 모른다  | 86  | 78.18 |
| 계                        |      | 110 | 100   |

### 3. 조사대상자의 자립지원 욕구 특성

#### 1)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욕구

대상자 중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81명(83.7%),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17명(17.3%)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85명(86.7%),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13명(13.3%)로 나타났다. 교육비 중 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69명(70.4%),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29명(29.6%)로 나타났다. 교육비 중 자격증 취득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84명(85.7%),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14명(14.3%)로 나타났다. 교육비 중 교재교구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78명(79.6%),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20명(20.4%)로 나타났다. 체력단련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67명(68.4%),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31명(31.6%)로 나타났다.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93명(94.9%),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5명(5.1%)로 나타났다.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65명(66.3%),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33명(33.7%)로 나타났다. 요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61명(63.3%),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34명(34.7%)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58명(59.2%),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40명(40.8%)로 나타났다. 경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69명(70.4%),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29명(29.6%)로 나타났다. 취업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는 60명(61.2%), 필요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38명(38.8%)로 나타났다.

< 표 4-7 >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욕구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임대료          | 필요하지 않음 | 17 | 17.3 |
|              | 필요함     | 81 | 83.7 |
| 의료비          | 필요하지 않음 | 13 | 13.3 |
|              | 필요함     | 85 | 86.7 |
| 교육비_대학등록금    | 필요하지 않음 | 29 | 29.6 |
|              | 필요함     | 69 | 70.4 |
| 교육비_자격증 취득지원 | 필요하지 않음 | 14 | 14.3 |
|              | 필요함     | 84 | 85.7 |

|            |         |    |      |
|------------|---------|----|------|
| 교육비_교재교구지원 | 필요하지 않음 | 20 | 20.4 |
|            | 필요함     | 78 | 79.6 |
| 체력단련       | 필요하지 않음 | 31 | 31.6 |
|            | 필요함     | 67 | 68.4 |
| 생활지원       | 필요하지 않음 | 5  | 5.1  |
|            | 필요함     | 93 | 94.9 |
| 심리 상담 지원   | 필요하지 않음 | 33 | 33.7 |
|            | 필요함     | 65 | 66.3 |
| 요리 교육      | 필요하지 않음 | 34 | 34.7 |
|            | 필요함     | 61 | 63.3 |
| 노동인권 교육    | 필요하지 않음 | 40 | 40.8 |
|            | 필요함     | 58 | 59.2 |
| 경제 컨설팅     | 필요하지 않음 | 29 | 29.6 |
|            | 필요함     | 69 | 70.4 |
| 취업 고용 지원   | 필요하지 않음 | 38 | 38.8 |
|            | 필요함     | 60 | 61.2 |

대상자들의 받기를 희망하는 욕구들을 조사한 결과 보호종료 후 기간 및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라 희망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3년 초과된 대상자는 보호종료 3년 미만의 대상자보다 자존감코칭, 심리상담, 임대료, 생활지원, 교육비\_자격증 취득을 위한 등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8 >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에 따른 지원 욕구

| 구분              | 변인    | N  | M(SD)      | t       |
|-----------------|-------|----|------------|---------|
| 자존감 코칭<br>필요    | 3년 미만 | 57 | 2.54(1.07) | -2.26*  |
|                 | 3년 이상 | 41 | 3.09(1.04) |         |
| 심리 상담<br>필요     | 3년 미만 | 57 | 2.71(1.08) | -2.56*  |
|                 | 3년 이상 | 41 | 3.21(0.93) |         |
| 임대료<br>필요       | 3년 미만 | 57 | 3.05(1.14) | -.2.49* |
|                 | 3년 이상 | 41 | 3.53( .77) |         |
| 생활 지원<br>필요     | 3년 미만 | 57 | 2.49(1.00) | -2.92** |
|                 | 3년 이상 | 41 | 3.07( .93) |         |
| 교육비_자격증 취득지원 필요 | 3년 미만 | 57 | 3.23(1.01) | -2.02*  |
|                 | 3년 이상 | 41 | 3.59( .59) |         |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7명(37.3%)였다. 보호종료주거지원통합서비스에서는 임대료지원, 의료비, 교육비지원, 체력단련지원, 생활지원, 노동인권교육, 심리상담지원, 경제교육 및 컨설팅, 취업고용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과 경험한 집단 간에 임대료와 교육비의 필요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력단련비 지원, 생활지원, 심리검사, 경제교육 및 컨설팅, 자존감 코칭, 취업고용지원 등의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지만, 경험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그 서비스의 내용 및 혜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주거지원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LH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살면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대학등록금 지원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t; 표 4-9 &gt;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욕구

| 구분            | 변인              | N  | M(SD)      | t      |
|---------------|-----------------|----|------------|--------|
| 임대료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51( .69) | 1.89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3.14(1.04) |        |
| 의료비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0(1.02)  | 1.39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71( .99) |        |
| 교육비_대학등록금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27( .93) | .28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3.21(1.08) |        |
| 교육비_자격증 취득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45( .80) | .74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3.32( .92) |        |
| 체력단련비 지원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16( .79) | 2.29*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70(1.03) |        |
| 생활지원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08( .92) | 2.78**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52(1.01) |        |
| 심리검사지원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24( .89) | 2.51*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72(1.05) |        |
| 경제교육 및 컨설팅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27( .96) | 2.22*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81( .99) |        |
| 자존감 코칭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18( .96) | 3.04**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55(1.04) |        |
| 취업 고용 지원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있음 | 37 | 3.32( .85) | 2.49*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83(1.06) |        |

## 2) 조사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지원 욕구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은 아래 표 <4-10>과 같다. 보호종료 후 임대료지원이 필요하지않다고 한 대상자는 6명(5.45%)였으며,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104명(94.55%)로 나타났다. 의료비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대상자가 7명(6.36%),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103명(93.64%)로 나타났다. 대학학자금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지않다고 밝힌 대상자는 17명(15.45%),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93명(84.55%)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학원비 지원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대상자는 14명(12.73%),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96명(87.27%)로 나타났다. 교재 및 교구 등 구입지원이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18명(16.36%),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92명(83.64%)로 나타났다. 체력단련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30명(27.27%),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80명(72.73%)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의 경우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6명(5.46%),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104명(94.54%)로 나타났다.

자립생활기술에 대한 의견은 요리배우기가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26명(23.64%)이며,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84명(76.36%)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은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가 37명(33.64%),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가 73명(66.36%)로 나타났다. 심리검사 및 상담에 대해서는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가 38명(34.55%),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72명(65.45%)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의 경우,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26명(23.63%),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84명(76.37%)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코칭과 관련해서는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가 41명(37.27%),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가 69명(62.73%)으로 나타났다. 수납정리 등에 대한 교육은 필요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0명(36.37%),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가 70명(63.63%)으로 나타났다. 진학 및 취업을 위한 면접 컨설팅의 경우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23명(20.91%),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87명(79.09%)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 상담과 관련해서는 필요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16명(14.54%)이며,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94명(85.46%)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예비커플교육, 예비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않다고 밝힌 대상자는 45명(40.91%), 필요하다고 밝힌 대상자는 65명(59.09%)로 나타났다.

&lt; 표 4-10 &gt;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

| 구 분                      |        | 필요하지않다 | 필요하다  |
|--------------------------|--------|--------|-------|
| 임대료 지원                   | 빈도     | 6      | 104   |
|                          | 백분율(%) | 5.45   | 94.55 |
| 의료비 지원                   | 빈도     | 7      | 103   |
|                          | 백분율(%) | 6.36   | 93.64 |
| 대학 학자금 지원                | 빈도     | 17     | 93    |
|                          | 백분율(%) | 15.45  | 84.55 |
| 자격증 취득 학원비 지원            | 빈도     | 14     | 96    |
|                          | 백분율(%) | 12.73  | 87.27 |
| 교재 및 교구 등 구입 지원          | 빈도     | 18     | 92    |
|                          | 백분율(%) | 16.36  | 83.64 |
| 체력단련 비용 지원               | 빈도     | 30     | 80    |
|                          | 백분율(%) | 27.27  | 72.73 |
| 생활지원(식료품, 생활용품, 가구 등 지원) | 빈도     | 6      | 104   |
|                          | 백분율(%) | 5.46   | 94.54 |
| 요리 배우기                   | 빈도     | 26     | 84    |
|                          | 백분율(%) | 23.64  | 76.36 |
| 노동 인권 교육                 | 빈도     | 37     | 73    |
|                          | 백분율(%) | 33.64  | 66.36 |
| 심리검사 및 상담 제공             | 빈도     | 38     | 72    |
|                          | 백분율(%) | 34.55  | 65.45 |
| 경제교육                     | 빈도     | 26     | 84    |
|                          | 백분율(%) | 23.63  | 76.37 |
| 자존감 코칭                   | 빈도     | 41     | 69    |
|                          | 백분율(%) | 37.27  | 62.73 |
| 수납정리 배우기                 | 빈도     | 40     | 70    |
|                          | 백분율(%) | 36.37  | 63.63 |

|                     |        |       |       |
|---------------------|--------|-------|-------|
| 면접 컨설팅              | 빈도     | 23    | 87    |
|                     | 백분율(%) | 20.91 | 79.09 |
| 진로, 취업 상담           | 빈도     | 16    | 94    |
|                     | 백분율(%) | 14.54 | 85.46 |
| 성교육(예비커플교육, 예비부모교육) | 빈도     | 45    | 65    |
|                     | 백분율(%) | 40.91 | 59.09 |

위의 결과로 보호종료 후에도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생활지원(식료품, 생활용품, 가구 등 지원), 임대료 지원, 의료비 지원 순으로 서비스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에도 프로그램지원 등의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에 대한 의견으로는 참여의사있다 54명(49.09%), 참여의사없다 12명(10.91%), 잘 모르겠다 44명(40.0%)로 나타났다.

< 표 4-11 > 대상자(보호종료예정아동)의 보호종료 후 프로그램지원 등 참여의사

| 구 분                     |        | 빈도  | 백분율   |
|-------------------------|--------|-----|-------|
| 보호종료 후 프로그램지원 등<br>참여의사 | 있다     | 54  | 49.09 |
|                         | 없다     | 12  | 10.91 |
|                         | 잘 모르겠다 | 44  | 40.00 |
| 계                       |        | 110 | 100   |



## 4.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 1)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4.10, 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63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취업 준비 중이거나 대학에 입학준비 중인 경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서비스의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 표 4-12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 평균점수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아존중감 | 98 | 4.10 | 0.68 |
| 효능감   | 98 | 3.63 | 0.87 |

< 표 4-13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현재상황 및 서비스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 구분    |               | 변인           | N  | M(SD)      | t      |
|-------|---------------|--------------|----|------------|--------|
| 자아존중감 | 현재상황          | 취업 또는 재학중    | 71 | 4.24( .61) | 3.47** |
|       |               | 취업준비 또는 입학준비 | 27 | 3.83( .65) |        |
|       | 주거지원통합 서비스 경험 | 서비스 경험 있음    | 37 | 4.29( .39) | 2.25*  |
|       |               | 서비스 경험 없음    | 61 | 3.98( .78) |        |

## 2)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문제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문제 평균점수는 2.54로 나타났다. 그 중 공격성의 평균점수는 2.44로 나타났으며, 불안우울은 2.63, 정서조절은 2.45로 나타났다. 심리정서문제는 현재 상황과 주거지원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취업 준비중이거나 입학준비중인 경우에 비해 심리정서문제 중 우울과 불안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불안 및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퇴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 표 4-14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문제 평균점수

| 구분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심리정서문제 | 불안    | 98 | 2.67 | 0.68 |
|        | 우울    | 98 | 2.58 | 1.16 |
|        | 공격성   | 98 | 2.44 | 0.73 |
|        | 정서조절감 | 98 | 2.45 | 0.95 |

< 표 4-15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현재상황 및 서비스 경험에 따른 심리정서문제

| 구분 |              | 변인           | N  | M(SD)      | t       |
|----|--------------|--------------|----|------------|---------|
| 불안 | 현재상황         | 취업 또는 재학중    | 71 | 2.45( .95) | 4.09*** |
|    |              | 취업준비 또는 입학준비 | 27 | 3.179(.72) |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험 | 서비스 경험 있음    | 37 | 2.35( .83) | 2.53*   |
|    |              | 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84( .98) |         |
| 우울 | 현재상황         | 취업 또는 재학중    | 71 | 2.42( .72) | 3.61*** |

|  |                  |              |    |            |        |
|--|------------------|--------------|----|------------|--------|
|  |                  | 취업준비 또는 입학준비 | 27 | 2.99(.62)  |        |
|  | 주거지원통합<br>서비스 경험 | 서비스 경험 있음    | 37 | 2.20(.95)  | 3.07** |
|  |                  | 서비스 경험 없음    | 61 | 2.91(1.20) |        |
|  | 보호종료 후<br>기간     | 3년 이내        | 57 | 2.41(1.12) | -2.32* |
|  |                  | 3년 초과        | 41 | 2.96(1.16) |        |

### 3)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행복감

조사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행복감 평균은 3.81로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16년에 조사한 결과 2.53점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현재상황과 보호종료 후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취업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3년이내의 대상자들이 3년이 경과한 대상자들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6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행복감 평균점수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행복감 | 98 | 3.81 | 0.72 |

< 표 4-17 > 대상자(보호종료아동)의 현재상황 및 보호종료 후 기간에 따른 행복감

| 구분  |              | 변인           | N  | M(SD)      | t     |
|-----|--------------|--------------|----|------------|-------|
| 행복감 | 현재상황         | 취업 또는 재학 중   | 71 | 3.90( .72) | 2.13* |
|     |              | 취업준비 또는 입학준비 | 27 | 3.56( .69) |       |
|     | 보호종료 후<br>기간 | 3년 이내        | 57 | 3.93( .69) | 2.13* |
|     |              | 3년 초과        | 41 | 3.63( .73) |       |

## 제2절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 1.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한 의견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긍정적이라고 여기지 못했지만, 보호종료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의 생활이 모두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인이 된 후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설에서 다수가 함께 지내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눈치가 빨라진 것이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에 여러 명이 동의했다.

*저는 어릴 때는 부정적이었다가 시설의 선생님들, 형들, 동생들 많이 알게 되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가정집에서 살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몰랐었지 않았을까,,,,,,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B1)*

*단체생활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포레가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죠, 그때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지금 퇴소 후 혼자 있다 보니 옛날에 같이 있던 게 생각이 나요,,,,,, 누가 챙겨줬다는 기억이 간절하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 밑에 알보이지 않게 하고, 위에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게 나와서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잘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동생이 쳐다보지는 않지만,, (A3)*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표정만 봐도 눈치가 생겨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든 친구들이랑 있어서 혼자 있을 일이 없어서,,, 눈치밥 먹은 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A1)*

*평탄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 독립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런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의 단단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판이 되고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A4)*

*눈치를 엄청 봤단 말이에요,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서, 아무튼 가정*

집에서 자랐다면 그게 좀 없었을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엄청 도움이 되요(B2)

시설에 살면서 학원 등 교육비의 지원 및 문화여가생활을 지원받은 점이 좋았다고 하면서, 보호종료 후에는 문화여가생활 등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시설은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체험활동 그런 거 좋아요,, 오히려 시설에 있을 때 진짜 부족함 없이 자라서,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보육원 중에서 짝이지 않을까?,,,, 후원도 많이 들어와서 놀러 많이 다녔어요, 그런 경험들이 좋았어요, (B2)

체험활동이요, 문화, 놀러가는 거 많았어요,(A2)

자신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다른 외부인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상대방이 편견을 갖고 자신을 대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살짝 조심하는 편이에요, 밝혀봤자 솔직히 좋은 점도 없고, 오히려 들통나면(어쩌다 밝혀지면) 부끄럽고 그런 게 좀 있어요(B1)

예, 맞아요, 저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잘 컸네' 저는 힘들었던 그런 게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넌 좀 다르게 자랐다' 이러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B2)

대학생이 되고 조금 편해졌어요, 쪽팔리긴 했는데 큰길에 시설이 있어서,, 안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갔어요, 시설에서 자랐다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현재도 잘 안 밝히는 편이고,,, 친해지기 전에는 안 밝혔죠, 군대 얘기 나올 때 마다 그 때가 위기예요,,,,,(A3)

안 밝혔어요, 지금도 아는 친구가 2~3명 밖에 안되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밝히지 않았어요, 개가 편견 갖지 않을거라는 확신하는데, 알 수도 있긴한데, 그냥 용기가 없어요, 제가 그 그릇이 안되는 것 같아요(A2)

## 2. 정서적 지지체계에 대한 의견

정서적 지지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설에서 생활할 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보육사가 있었거나, 같은 시설에서 생활한 형 등의 내부의 인적 자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와 위탁가정이 아닌 외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보호종료 후 만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담당 통합사례관리사 등 외부의 인적 자원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생활에 비해 위탁가정은 보호기관 내에서의 정서적 지지체계보다 외부에서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운이 좋았는지, 시설에서 딱 한 분의 이모가 있어요, 그 분한테 속마음 이야기 하고, 조언 받고, 계속 그 분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연락하고 (A2)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하고, 혼자가고, 혼자 알아보고, 혼자가 기본베이스, 할머니에게 말하기에는 죄송한 마음이 크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힘들 때 참고 참다가 놀이터나 그런데서 밖에서 울고 들어가요, 할머니가 모르게요,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어쩔수 없는 세대 차이도 있고,,, 공감해주더라도 요만큼만 해준다 생각이 들었어요,(A4)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센터장님과 지금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어른이 되고 난 후 지원은 오히려 센터장님이 더 많이,, 심리적으로도,, 진학에 대해서도 센터장님과 얘기 나눴어요(B2)

이모가 해줄 수 없는 조언이나 고민이 있을 때 약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귀찮아도 선생님이 말하면 듣게 되고, 이거 해봐라, 저거해봐라, 그 때 주신 정보가 도움이 됐습니다. (A5)

### 3. 정보공유에 대한 의견

보호종료 직후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주로 같은 시설에서 먼저 보호종료된 선배들에게 정보를 받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보호종료 전 교육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단체로 시설 선생님들에게 듣는 정보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보호종료 후에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지만, 흔히 사용하는 SNS와 달리 본인이 노출되지 않는 수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퇴소하자마자 자립관 갔고, 대학생할하면서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장학금 등 혜택 이런거 검색해서 단톡방에 뿌려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나오자마자 애들에게 썩 돌렸어요, 바람개비 서포터즈 안내 받았어요(A2)

대전에 오면서 2017년에 그냥 자취방에 살았어요, 정보가 느려요, 지역에 따라 정보가 달라요, LH정보도 전혀 몰랐어요(A4)

저도 정보통이 필요하긴 해요,,,,,아름다운 재단 인스타 관련된 정보 올리기도 하는데, SNS는,,, 대놓고 하는 건 힘들고 입을 따로 만들면...(A3)

대학을 안 갈 생각일 때, 시설에서 같이 지낸 좋은 형이 대학에 가라고 하고, 타지역의 경험도 하라고 해서 대전으로 와서 대학도 진학을 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놓치고 지나고나서 알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대전 단톡방에 정보를 주는데 잘 보고 있어요(B1)

앱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반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A2)

#### 4. 필요한 지원 서비스

참여자들은 현재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들은 현재의 지원에 만족한다고 이야기 하며, 추가적으로 소모임을 희망하였다. 같은 주제와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토익, 자격증 준비모임 등 자기계발 및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스터디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종료 후 이런 지원체계가 있었다라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등바등대면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지금 지원 받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만족해요, 멘토링, 모여서하는 멘토링, 리더쉽프로그램 이런 거 필요해요, 20대에 맞춰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A2)

이 모임도 좋아요(FGI) 먹을 것만 챙겨주면 모임 것 같아요, 친목을 위한 모임도 좋아요,(A1)

다른 친구를 통해 여기를 알게 되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A3)

모임을 통해 내가 몰랐던 정보를 서로 알게 되거든요, 목적성을 갖지 않아도,,, 그리고 진짜 배우고 싶은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원 받는걸 보면 정해져 있어요, 한정적, 조금 넓혀지면,,,,(A4)

예~ (아주긍정적) 그쵸,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하는 게,,, 활동이,,, (B1)

현재 지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이러면 공부만 했을 것 같고,,, 지원받는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로와 미래, 공부에 투자할 수 있게,,, 생활비, 적금, 뭐 이런 고민 다 내려놓고 공부만 하고 싶어요,,, (A4)

저는 공부, 한국사 자격증 준비, 토익학원 이런거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모임, 그때는 몰랐는데 나와보니 필요해서요, (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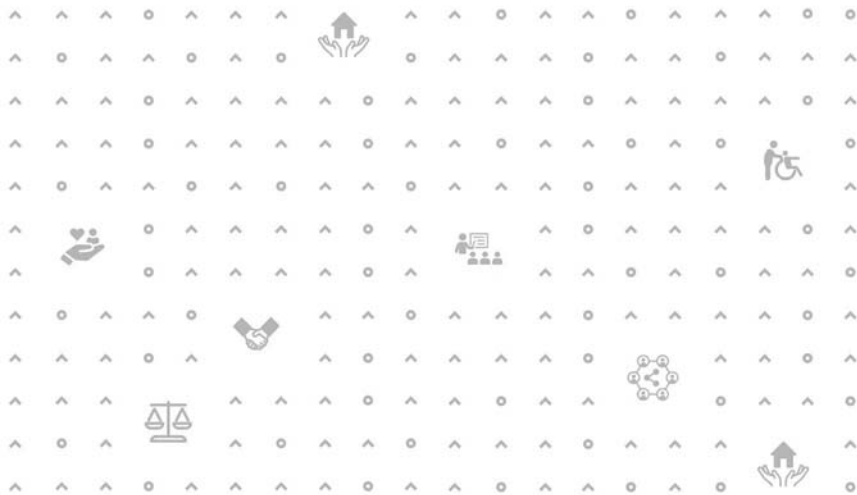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제5장 결론





##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사회적 실태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의 이용현황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대전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전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를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조사하였지만, 이 연구는 광역단위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시행된 후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와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욕구와 현황을 비교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와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에 따른 욕구와 실태의 차이를 조사한 점, 그리고 현재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현황과 욕구 등을 조사하여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전지역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등 가정 외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대략 200여명이다. 이 연구에서 그들의 자립지원준비 정도와 제공 서비스 인지 정도, 필요지원 의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보호종료 후의 삶 중 주거문제와 취업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나 CDA(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상자는 많았으나, 그 외의 지원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각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FGI에 참여한 대상자가 언급했듯이 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은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퇴소생 선배 등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선배 등을 활용한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지원 및 임대료, 의료비 지원 등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욕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과 자존감 코칭 등의 욕구가 낮은 것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퇴소 3년 미만 대상자들의 욕구가 3년 이후 대상자들의 욕구에 비해 낮게 나온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은 대략 1,200여명이지만, 대전아동복지협

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혜택을 경험했거나,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37명에 불과하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와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 간에는 자존감, 불안, 우울 등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지원 중 자립서비스나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립생활상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상정 외, 2019). 따라서 대상자들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지원하는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포함한 통합사례관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지원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지원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생활지원서비스(94.9%)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식자재 등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 지원에 대한 욕구도 86.7%로 높게 나왔다. 임대료와 생활물품 등의 욕구는 보호종료 후 기간 및 취업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두 높게 나왔다. 반면, 교육비(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의 경우, 보호종료 후 3년 이상 경과된 집단에서 3년 미만의 집단보다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종료 후 대학에 진학 후 졸업을 앞두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시기로 보이며, 이 시기에 취업 또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거주할 때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학원 수강이나 문화생활 등의 경험이 많았으나, 보호종료 후 자격증 취득이나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문화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종료와 동시에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보호종료 후 3년이 지난 대상자들과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상자들은 심리상담 지원 및 자존감 코칭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아동은 일반아동과 달리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과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 비해 심리적인 취약성을 가지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과 우울감이 보호종료와 동시에 극복될 수는 없는 것이며, 보호종료 후 외로움과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우울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그 결을 같이 한다(보건복

지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6).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적인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 보장원에서는 2020년에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다섯째,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통해 개별적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비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에서는 개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대상자들과 1:1 만남을 통해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밀착 지원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보호종료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인 요인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대상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 3년 이후의 대상자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더 갖고 있으며,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더 희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단순히 산술적인 기간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에는 심리상담, 건강, 주거, 학업 및 진로 계획, 원가족과 관계, 자립까지의 생계 유지수단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에야 본인이 시설에서 생활했을 때 받은 혜택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은 시설에서 거주했을 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시설에서 살고 있음, 또는 살았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이 싫으며, 불쌍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

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잘 지내고 잘 성장하였음에도 타인의 시선에 따른 불편함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시설과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급한 것은 혼자라는 외로움이었다. 또한 다양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정보를 확보하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나가길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개별적인 지원과 더불어 집단적 지원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자조집단에 대한 욕구도 보였다. 자조집단은 공통적인 주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인 모임으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여 자신의 문제나 당면한 과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자조모임, 봉사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쉼터 등의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욕구와 보호종료아동의 욕구를 비교해 본 결과,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보호종료 후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즉, 보호종료 직후에는 주거지원 및 교육비-대학등록금, 생활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종료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심리상담지원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각 시기에 따라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호가 종료되고 법적인 지원이 종결 된 이후에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아동자립전담기관은 단순 행정적인 업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입소했던 시설과 연계 및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을 준비하는 것은 각 시설 및 위탁센터의 자립전담요원이 말고, 보호종료 이후에는 아동자립전담기관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각 시설 자립전담요원과 협업을 통해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보호종료아동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전광역시에는 아동자립전담기관의 설치가 시급하고, 이 자립전담기관 내에 전문적인 사례관리사를 배치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자립전담기관과 자립전담 사례관리사들을 통해 개별적인 지원체계 및 집단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가 보호아동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권지성·정선옥, 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29-253.
- 김민정·이운경·김태우·양예진,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1(2): 89-118.
- 김예성·이경상, 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2: 7-32.
- 박신애·최옥채,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경험」, 『사회과학연구』, 34(2): 127-153.
- 박혜지·이정화, 2020,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1): 65-80.
- 보건복지부, 2019,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보건복지부, 2021,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지원단,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아동권리보장원,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양은별·김지혜·정익중·이정희. (2017).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퇴소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4): 133-158.
- 이상정·류정희·임정미·이주연·노혜련·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 이재완, 2018,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7: 35-73.
- 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자립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6(4): 293-322.
- 장정은·전종설,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장혜림 · 이정애 · 강지연 · 정익중, 2017, 「가정 외 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 장혜림 · 정익중, 2017, 「가정의 보호 퇴소 대학생의 생활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2): 47-80.
- 제철웅 · 장영인, 2019, 「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법학』, 27(1): 35-77.
- 조소연 · 노혜련, 2018, 「공동생활가정 아동-친가족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 탈북아동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4: 65-106.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 Sara G, Lisa A. S. & Jeffrey J. S., 2011. Why youth leave care: Understandings of adulthood and transition successes and challenges among youth aging out of child welfare, *Children and Youth Review*, 33: 1039-1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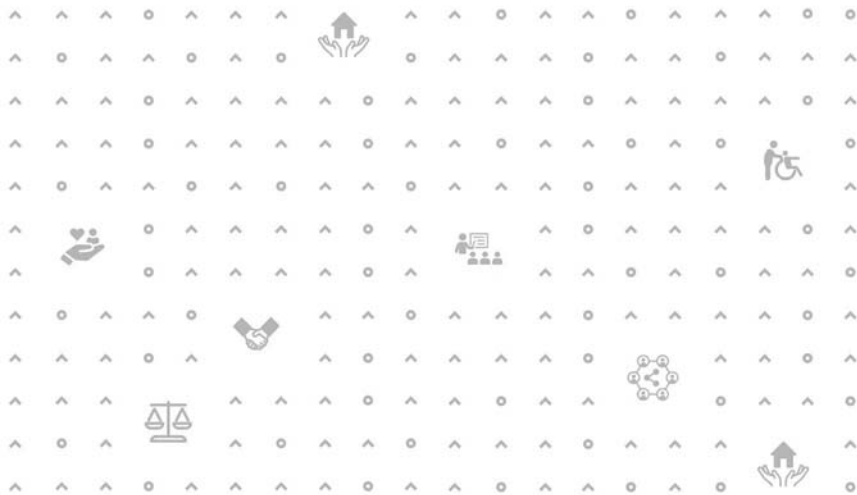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부 록





## &lt;부록 1&gt; \_ 보호종료아동 대상 설문지

### ◁대전지역 보호종결 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결 청년들의 자립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를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연구기관 : 대전아동복지협회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042-242-5726

◎다음의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① 남성 (        )                      ② 여성 (        )

2. 귀하의 출생년월을 작성해 주십시오.

(            년            월 출생)

3. 귀하가 마지막으로 보호받았던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① 아동양육시설 (        )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  
③ 가정위탁 (        )                      ④ 기타 \_\_\_\_\_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졸업 (     )    ② 고등학교 졸업 (     )    ③ 전문대 졸업 (     )  
④ 대학교(4년제) 졸업 (     )    ⑤ 대학원 졸업 이상 (     )

5. 귀하의 시설 퇴소 혹은 가정위탁이 종결된 년도는 언제입니까?

- ① 2016년 (     )    ② 2017년 (     )    ③ 2018년 (     )  
④ 2019년 (     )    ⑤ 2020년 (     )    ⑥ 2021년 (     )  
⑦ 기타 (     년도)

6. 보호종료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만기퇴소 (     )    ② 연장퇴소 (     )    ③ 중도퇴소 (     )

7. 귀하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 ① 대학진학 준비 중 (     )    ② 대학재학 중 (     )    ③ 취업준비 중 (     )  
④ 취업 중 (     )  
↳ 취업 하신 경우,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8. 귀하의 현재 자립수당(월 30만원) 수급 경험은 어떠십니까?

- ① 현재 받고 있음 (     )    ② 이전에 받았으나 기한이 끝나 종결됨 (     )  
③ 받은 경험 없음 (     )

9. 귀하의 자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퇴소(보호종료) 시 받은 자립정착금, CDA(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 ① 자립정착금 (     원)    ☐ 받지않음  
② CDA(디딤씨앗통장) (     원)    ☐ 받지않음  
③ 후원금 (     원)    ☐ 받지않음

(2) 퇴소(보호종료) 시 받은 자립정착금, CDA(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현재 남아있습니까?

1)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자립정착금 (     원)  
② CDA(디딤씨앗통장) (     원)  
③ 후원금 (     원)

(3) 퇴소(보호종료) 시 받은 자립정착금, CDA(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였습니까? (지출한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응답 가능)

|                          | 자립정착금<br>(예) 300만원 | CDA<br>(예) 300만원 | 후원금<br>(예) 300만원 |
|--------------------------|--------------------|------------------|------------------|
| ① 전혀 지출하지 않음 (체크해주시시오)   |                    |                  |                  |
| ② 주거비(보증금, 월세 등)         |                    |                  |                  |
| ③ 교육비(대학등록금, 학원, 교재비 등)  |                    |                  |                  |
| ④ 의료비                    |                    |                  |                  |
| ⑤ 생활비(의류, 침구, 가구, 생필품 등) |                    |                  |                  |
| ⑥ 식비                     |                    |                  |                  |
| ⑦ 여행 및 유흥비               |                    |                  |                  |
| ⑧ 가족 또는 친구에게 주거나 빌려줌     |                    |                  |                  |
| ⑨ 기타 ( )                 |                    |                  |                  |

(4) 현재 귀하의 월 소득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자립수당 (                  원)
- ② 기초생활수급비 (                  원)
- ③ 근로소득 (                  원)
- ④ 기타 (                  ) (                  원)

(5) 현재 부채(빚)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                  ② 없음 (                  )
- ↳ 있다면 얼마입니까? (                  원)

10. 보호종결 후 지원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장학금 포함)

(지원받은 곳의 예시 : 대전아동복지협회, 시설, 국가장학금, 포스코 등등)

- ① 임대료 (지원받은 곳 :                                                  )
- ② 의료비 지원 (지원받은 곳 :                                                  )
- ③ 교육비 지원 (지원받은 곳 :                                                  )
- ④ 생활물품 등 생활비 (지원받은 곳 :                                                  )
- ⑤ 상담지원(심리검사, 상담 등) (지원받은 곳 :                                                  )
- ⑥ 기타 (                                                  )

11. 보호종결 후 경험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br>항                       | 받은경험<br>없다 | 전혀도움<br>안되었다 | 별로도움<br>안된다 | 도움된다 | 매우도움<br>된다 |
|------------------------------|------------|--------------|-------------|------|------------|
| 1. 임대료 지원                    |            |              |             |      |            |
| 2. 의료비 지원                    |            |              |             |      |            |
| 3. 교육비 지원 (대학 학자금)           |            |              |             |      |            |
| 4. 교육비 지원 (자격증 취득 학원비용)      |            |              |             |      |            |
| 5. 교육비 지원 (교재 및 교구 등 구입 지원)  |            |              |             |      |            |
| 6. 체력단련 비용 지원                |            |              |             |      |            |
| 7. 생활 지원(식료품, 생활용품, 가구 등 지원) |            |              |             |      |            |
| 8. 요리 교육                     |            |              |             |      |            |
| 9. 노동인권 교육                   |            |              |             |      |            |
| 10. 심리 검사 및 상담               |            |              |             |      |            |
| 11. 경제, 재무 교육 및 컨설팅          |            |              |             |      |            |
| 12. 취업 및 고용 지원               |            |              |             |      |            |
| 13. 기타 ( _____ )             |            |              |             |      |            |

12. 다음의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 문<br>항                       | 전혀<br>필요하지<br>않다 | 별로<br>필요하지<br>않다 | 필요하다 | 매우<br>필요하다 |
|------------------------------|------------------|------------------|------|------------|
| 1. 임대료 지원                    |                  |                  |      |            |
| 2. 의료비 지원                    |                  |                  |      |            |
| 3. 교육비 지원 (대학 학자금)           |                  |                  |      |            |
| 4. 교육비 지원 (자격증 취득 학원비용)      |                  |                  |      |            |
| 5. 교육비 지원 (교재 및 교구 등 구입 지원)  |                  |                  |      |            |
| 6. 체력단련 비용 지원                |                  |                  |      |            |
| 7. 생활 지원(식료품, 생활용품, 가구 등 지원) |                  |                  |      |            |
| 8. 요리 교육                     |                  |                  |      |            |
| 9. 노동인권 교육                   |                  |                  |      |            |
| 10. 심리 검사 및 상담               |                  |                  |      |            |

|                                   |  |  |  |  |
|-----------------------------------|--|--|--|--|
| 11. 경제, 재무 교육 및 컨설팅               |  |  |  |  |
| 12. 자존감 코칭                        |  |  |  |  |
| 13. 수납 정리 교육 및 컨설팅                |  |  |  |  |
| 14. 면접 컨설팅 등 취업이나 고용관련 지원         |  |  |  |  |
| ※ 그 외 희망하는 지원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  |  |  |

※아래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진솔하게 답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거의<br>그렇지<br>않다 | 그저<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                 |                 |           |            |           |
|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                 |           |            |           |
|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                 |                 |           |            |           |
| 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                 |           |            |           |
| 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                 |                 |           |            |           |
| 6.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                 |                 |           |            |           |
|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                 |                 |           |            |           |
| 8.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                 |                 |           |            |           |
| 9.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                 |           |            |           |
| 10.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                 |           |            |           |
| 11.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                 |                 |           |            |           |
| 12.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 13.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                 |           |            |           |
| 14.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                 |                 |           |            |           |
| 15.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                 |                 |           |            |           |
| 16.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                 |                 |           |            |           |

|                                        |  |  |  |  |  |
|----------------------------------------|--|--|--|--|--|
| 17.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  |  |  |  |  |
| 18.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  |  |  |  |  |
| 19. 나는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  |  |  |  |  |
| 20. 나는 괴로울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21.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  |  |  |  |  |
| 22.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  |  |  |  |  |
| 23.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  |  |  |  |  |
| 24.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  |  |  |  |  |
| 25.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  |  |  |  |  |
| 26.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  |  |  |  |  |
| 27.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  |  |  |  |  |
| 28. 나는 행복하다.                           |  |  |  |  |  |
| 29.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  |  |  |  |  |
| 30. 일기나 편지, 메모지 등에 자살에 대한 글을 자주 쓴다.    |  |  |  |  |  |
| 31. 나는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32.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각한다.                   |  |  |  |  |  |
| 33.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  |  |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각각의 문항들이  
빠짐없이 체크되었는지 살펴봐주세요.

추후에 참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 ☎                      -                      -                      )



## &lt;부록 2&gt; \_ 보호종료예정아동 대상 설문지

## ◁대전지역 보호종료예정 아동 대상자 자립준비 및 욕구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의 자립준비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를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연구기관 : 대전아동복지협회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042-242-5726

◎다음의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① 남자 (        )              ② 여자 (        )

2. 귀하의 출생 연도를 작성해 주십시오.

(            년            월 출생)

3. 귀하는 학교 / 학년에 체크해 주세요

① 중학교 1학년 (        )    ② 중학교 2학년 (        )    ③ 중학교 3학년 (        )  
④ 고등학교 1학년 (        )    ⑤ 고등학교 2학년 (        )    ⑥ 고등학교 3학년 (        )

4. 귀하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① 아동양육시설 (        )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  
③ 가정위탁 (        )              ④ 기타 (                              )

5. 현재 원가족(연고자)과 얼마나 연락을 하고 있나요?

- ① 거의 매일                      ② 1주에 3번 이상                      ③ 매주 1회 이상, 한 달에 4번 이상  
④ 한 달에 1회 이상                      ⑤ 1년에 6회 이상                      ⑥ 1년에 5회 이하  
⑦ 연락이 없음

6. 희망하는 퇴소예정 시기가 있나요?

- ① 고등학교 졸업 후                      ② 대학교 졸업 후  
③ 대학교 재학 중 희망할 때 아무 때나                      ④ 법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⑤ 기타 ( )

7. 보호종료 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① 주거 ( )                      ② 학업 ( )                      ③ 취업 ( )                      ④ 교우(친구)관계 ( )  
⑤ 심리적 어려움 ( )                      ⑥ 법적 문( )                      ⑦ 문화, 여가활동 ( )  
⑧ 일상생활 관리(식사, 청소 등) ( )                      ⑨ 기타 ( )

8.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저축 ( )                      ② 생활용품 구입 ( )                      ③ 생활비 ( )                      ④ 여행 ( )  
⑤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등) ( )                      ⑥ 주거지 마련 ( )  
⑦ 기타( )

9. 보호종료 후 CDA(디딤씨앗통장)의 활용 계획은 무엇인가요?

- ① 해지하지 않고 계속 적립한다.( )  
② 해지하여 바로 사용한다. ( ) ⇒ 10번에 답을 해주세요.  
③ 기타( )

10. (9번에 ②번에 답한 분만 체크해 주세요.) 디딤씨앗통장의 사용 계획은 무엇인가요?

- ① 주거비( )                      ② 교육비( )                      ③ 결혼자금( )                      ④ 기타( )

11. 다음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정부와 지자체, 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입니다. 알고있는 것에 체크해주세요.

| 문   | 항                     | 알고있다 | 모른다 |
|-----|-----------------------|------|-----|
| 1.  | 자립정착금                 |      |     |
| 2.  | CDA(디딤씨앗통장)           |      |     |
| 3.  | 자립수당                  |      |     |
| 4.  | 국민기초생활급여              |      |     |
| 5.  | 국가장학금                 |      |     |
| 6.  | 공동생활가정입주(자립형, 그룹홈)    |      |     |
| 7.  | 자립생활관                 |      |     |
| 8.  |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         |      |     |
| 9.  | 주거지원(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      |     |
| 10.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주거지원+사례관리) |      |     |
| 11. | 바람개비서포터즈              |      |     |
| 12. | 기타( )                 |      |     |

12.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 문   | 항                         | 전혀<br>필요하지<br>않다 | 별로<br>필요하지<br>않다 | 필요하다 | 매우<br>필요하다 |
|-----|---------------------------|------------------|------------------|------|------------|
| 1.  | 임대료 지원                    |                  |                  |      |            |
| 2.  | 의료비 지원                    |                  |                  |      |            |
| 3.  | 대학 학자금 지원                 |                  |                  |      |            |
| 4.  | 자격증 취득 학원비 지원             |                  |                  |      |            |
| 5.  | 교재 및 교구 등 구입 지원           |                  |                  |      |            |
| 6.  | 체력단련 비용 지원                |                  |                  |      |            |
| 7.  | 생활 지원(식료품, 생활용품, 가구 등 지원) |                  |                  |      |            |
| 8.  | 요리 배우기                    |                  |                  |      |            |
| 9.  | 노동 인권 교육                  |                  |                  |      |            |
| 10. | 심리 검사 및 상담 제공             |                  |                  |      |            |
| 11. | 경제 교육                     |                  |                  |      |            |
| 12. | 자존감 코칭                    |                  |                  |      |            |
| 13. | 수납 정리 배우기                 |                  |                  |      |            |
| 14. | 면접 컨설팅                    |                  |                  |      |            |
| 15. | 진로, 취업 상담                 |                  |                  |      |            |
| 16. | 성교육 (예비커플교육, 예비부모교육)      |                  |                  |      |            |

※ 그 외 희망하는 지원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13. 보호종료 후에도 프로그램지원 등의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① 있다 (    )      ② 없다 (    )      ③ 잘 모르겠다 (    )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각각의 문항들이  
빠짐없이 체크되었는지 살펴봐주세요.